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말씀>

주 하나님이 해 주신 근거

본 문 :

<이사야 28:23>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신 것의 근거들을 축소, 확대로 자세히 봄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어떤 역사이며, 본인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했습니다.

지금은 말씀 듣고 거듭나서 자기의 죽은 부분을 살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잠언으로 말씀하겠습니다.

<계시의 잠언>

기도에 따라 상황이 좌우된다

1. 육신 행위대로 육도, 영도, 혼도 된다.
2. 새벽에 정한 기도 시간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니, 영계 상황이 보이기를 내가 넓은 큰 집의 마루에 앉아 있었다. 기도하다 잠깐 졸았을 때는 기도 시간이 적어지니 그 마루도 작아지고 집도 작아졌다.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고 열심히 기도하니, 그 상황을 ‘큰 집의 마루’로 보이면서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실체가 되는 대로 보인 것이다. 항상 하나님 쪽에 많이 하면 크게 보이고, 적게 하면 작게 보인다.

3. 기도 시간이 되어 새벽에 기도하는데, 한 여자가 왔다.

“기도는 하나님, 성령과의 사랑이다.” 하였다. 기도는 생명이다. 기도를 계속하다 내 기도의 방문을 내가 잠갔다.

이는 기도를 제재 안 받고 일대일로 함을 보인 것이다.

계속 기도하다 순간 잠이 들었다.

이때 보니, 내가 많은 자들이 타고 가는 차를 타고서 뚝 데로 갔다. 그 차가 달려서 점점 좁은 길로 가서 지하실 방에 들어갔다. 거기는 답답한 고통의 공간이었다.

기도를 안 하든지, 기도하다 졸면 주관권이 바뀐다.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이와 같이 다르다.

기도를 안 하면 이같이 내 육도, 혼도 운명이 좌우된다 함이다.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니, 그 환경에서 즉시 나왔다.

기도에 따라 상황이 좌우됐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된다

4.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악인들이 모여 한 나라를 공격하고 테러를 가하여 많은 자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망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하나님이 명령만 하면 천군들이 악인들에게 못 하게 하니, 사람들이 생명권에 살게 되고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는데, 왜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치 않으시고

늘 모르고 당하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맡겨서, 거의 사망으로 가고 전쟁도 하게 되어 생명들이 무참히 죽게 됩니까?” 하였다.

이때 “구원도, 모든 삶도 나 하나님과 같이 하자고 나눠 주었느니라.” 하고 음성이 들렸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하나님이 혼자만 하고 끝내면, 인간은 인간대로 살아가고 나 하나님은 늘 인간들을 위해서 일만 하다 끝난다. 그러면 인간과 각각의 삶이 된다.” 하셨다.

평화를 위해서 천국을 이루는 것도, 자기를 구원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과 같이 해야 된다고 하셨다.

사랑하는 자들끼리 같이 하면서 살아가야 마음도 맞고, 뜻도 맞고, 삶도 맞게 된다.

5. 지옥에 가서 보고, 모두 너무 고통받으니 지옥 밖에라도 나오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집을 지으려고 준비한 목재가 불에 타면 집을 지을 수 없듯이, 이제 지옥에서 나와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하셨다.

“그러므로 지옥 가기 전에 기도해 줘라.” 하셨다.

6.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믿게 해 주어서, 자기가 구원을 이루도록 할 일을 하게 해 준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해주지 않으시고, 기도해 주면 자기도 겪으면서 구원을 위해 행케 해 준다고 하셨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 성령, 예수님과 같이 하여 이루게 해 놓으셨다. ‘같이 일하며 사는 삶’ 이다.

7. 각자 자기가 행함으로써 자기 좋은 대로 만족하며 살게 된다. 고

등 동물에서 작은 곤충에 이르기까지 다 각각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살게 창조해 놓았으니, 사람도 하나님께만 맡기고 해 달라고만 하지 말고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창조자와 같이 이루는 것이다.

8. 사랑한다고 하여 남자가 여자의 할 일까지 혼자 다 해 주고 살면, 서로 만나며 같이 사는 삶이 없어진다. 같이 행함으로 인해 같이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된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구원자도 각각 할 일을 하면서 일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9. 하나님은 삶을 나눠 주어 각각 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도울 것은 도와주며 살게 했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일을 다 해 버리면, 밥까지 다 먹여 줘야 된다. 화장실도 가 줘야 된다. 신은 화장실을 못 가니, 이는 불가능하다.

고로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인간이 못 하는 것이다.

10. 하나님이 사람마다 삶을 나눠 주어, 자기 인생의 행할 것을 행하며 살게 책임을 주셨다. 고로, 목숨 걸고 잘 생활해야 된다.

- 시대에 따라 엄하게 자기 입을 금해야 된다
- 오해로 인해 죽음도, 사고도, 전쟁도 일어난다

11. 사람들과 할 말 하며 대화하다가 상대가 심정 상하는 말을 하면 화를 내며 말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정작 해야 할 말은 잊어버리고 하지 못하게 되어, 돌아와서 더 화가 난다.

12. 대화하다 화난다고 화나는 대로 말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제

대로 말을 못 하여 상대가 그대로 듣고 행하니 더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화도 내지 말고, 확실한 말을 제대로 해야 된다.

13. 상대의 말을 속히 잘 듣고, 대답은 다 알아보고 하여라.
14. 화김에 말하면, 그 말로 인하여 너를 꼬투리 잡고 공격한다.
15. 글로 써서 말하다 싸우게 되면, 후에 근거를 남기게 되어 문제가 된다. 시대에 따라 엄하게 자기 입을 금해야 된다.
16. 악한 자는 선한 자의 실 가닥 같은 모순을 보면, 거짓말을 섞어 밧줄같이 크게 만든다.
17. ‘했다.’ , ‘안 했다.’ 확실히 해야, 자기 말로 엮이지 않는다.
18. 하나님은 ‘하라.’ , ‘하지 마라.’ 로 말씀하셨다.
우리도 하나님 따라서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기도.
19. 자기 맘 상했다고 형제들의 가슴에 못질하는 행위 하지 말아라.
풀어 줄 때까지 간다.
20. 오해하고 말했다가 후에 알았으면, 바로 자기가 오해했다고 이야기하고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 사연을 말해 줘야 된다. 그리 함으로써 지은 죄를 청산하여라. 안 하면 죄값을 계속 받는다.

21. 어떤 자가 너무나도 어이없는 말을 했다면, 그럴 리가 없으니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아보아라. 모사 써서 했는지, 혹은 누가 어떤 말을 해서 듣고 그리했는지 확인하여라. 기도해서 하나님께 오해를 풀어 달라고 해라.
22. 만나지 못하는 자라면 기도해서 성령이 풀어 주시게 해 주고, 형제를 통해 전해서 풀어 주게 해 줘라. 오해로 인해 죽음도, 사고도, 전쟁도 일어난다. 오해가 무섭다.
23. 자기가 그런 일 없으면 오해하는 다른 자에게 말해라. 오해는 무지에서 생긴다.
24. 오해로 얼마나 많은 자들이 해를 당했는지 모른다. 상대는 죽기 전까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줬는데, 오해하고 그가 자기를 망하게 했다고 한다.
25.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기다리던 자들이 모르니 그를 이단 적그리스도로 오해하고 미워하다 십자가에 죽였다. 오해는 메시아를 죽이기까지 한다. 그렇지 않은 자를 자기가 오해해서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다 자신에게 간다.
26. 예수님이 창녀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고 전도하여 주를 알게 해 줬다. 그런데 미련하고 시대 구원자에 대해 소경인 자들은 예수님이 창녀들을 사랑했다고 오해했다. 그 죄가 그들을 지옥으로 가게 했다.

27. 오해하고 형제들을 미워한 자는 그 죄를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풀어 줘야 한다.
28. 역대하 35장을 보면, 요시아 왕이 무지하여 자기를 도와주러 온
자와 상극을 했다. 요시아 왕의 최고 소원을 해결해 주려고 하나
님이 애굽 왕 느고와 대군을 보내서, 그들이 갈그미스를 쳐 없애
러 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은 자기를 위해 싸워 주러
온 느고의 군대와 싸움을 하였다. 확인하고 안 싸운다고 해 놓
고, 요시아 왕은 변장하여 나가서 느고 왕의 군대와 또 싸웠다.
결국 죽었다.
29. 왕이라도 오해하면 싸우다 죽었다.
30. 오해는 무지에서 온다. 확인을 해야 된다.
31. 확인하면, 오해가 있어도 풀어 주니 오해가 없어진다.
32. 자기 위해 해 준 것을 이해 못 하고 오해하여, 미워하고 원수시
한다.
33. 어떤 자는 생각도 안 한 자인데 충성한다고 누가 공적을 써서
올렸다. 그래서 잘해 주니, 이성으로 보고 오해하고 의심하고 적
이 되기도 한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사람을 통해 잘해 주셨는데
오해한 것이다.
34. 어떤 자는 죽음에 처해서 하나님이 살려 주려고 잠깐 아프게 했

다. 기도하여 하나님을 그때 꼭 찾아야, 그 조건으로 사망에서 영도 육도 나오게 되어 살게 된다. 그런데 자기 아프게 했다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갔다.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서, 사탄이 물어 갔다. 고생하고 육은 멀하고, 영은 구원한다.

35. 어떤 자는 너무나 수고했다고 그 공적을 갚아 주려고, 상 주는 공적자 모임에 참여하게 했다. 작은 공적자 모임이었다.

많은 자를 전도한 자는 상으로 안 되니, 거할 곳을 주고 본격적으로 전도하는 사명을 주어 그 소원대로 하게 해 주려 했다.

그런데 자기는 딴 자보다 많이 전도했는데도 딴 자와 상이 같다고 오해하고, 가 버렸다.

다시 연락하여 “네 상은 너무 커서 내가 못 가지고 가니 구경만 시켜 주려고 했는데, 갔느냐?” 하며, 다시 오게 하였다. 그에게 거처지를 주며 “거기에 거하면서 전도만 하여라.” 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느냐.

36.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선생 역시 항상 더 잘해 주려고 환경 전환을 시켜 주는데, 못해서 쫓아냈느냐고 하며 오해한다.

37.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내게 하사 종살이 그만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오해한 자는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계속 종살이를 해야 된다.

신광야에서도 가나안 복지로 가라고 하였건만, 감사하며 가지 않고 모두 앉아서 귀신이 들리고 마귀의 몸이 되어 모세만 원망하고 불만·불평만 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에서 잘살고 있는

데 왜 우리를 여기로 나오게 했냐? 모세 스스로 한 짓이 아니냐. 모세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냐.” 하며 오해하고 원망했다. 후손을 위해서 선조들이 개척하며 가나안 복지에 가야 했다. 고로, 선조들은 고생도 한다. 후손들을 위해 길 닦듯이 먼저 고생을 하는 것이다.

38. 지금 섭리 사람들도 천 년사의 선조들이다. 그냥 기성 따라 성경 못 풀고 가면, 후손들이 계속 자녀권에서 살아간다. 새 시대 신부가 되었으니,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가야 된다.

39. 결혼 않고 집에서 계속 살다가 결혼해서 살면, 사랑도 받지만 고통이 많다. 그렇다고 못 살겠다고 도망쳐 달아나면, 그때는 자녀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다. 우리 이 시대도 그러하다.

40. 섭리사의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 성령, 성자와 예수님, 또 선생을 지난날부터 지금까지 오해하며 사는 자가 많다. 더 잘되게 해주려고 가는 길을 모르고, 오해하고, 불신하고, 투덜대고, 불만도 한다. 더 잘하고 충성하면, 때가 되었을 때 사랑하여 하나님이 더 잘해 주시려고 가는 길이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완전하게 갚으신다

매일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

41. 그 길을 가는 중에 고난, 환난, 고통의 지역을 지나가는데, ‘왜 신부 시대에 이같이 고통이 오지? 천 년 역사라고 했는데 신약 시대 고통보다 더하다.’ 하고 원망하며, ‘억울함 당하고, 미움 받고, 정말 힘들다.’ 고 한다.

42. 때 지나면 딴 세상에 처해 살게 된다. 휴거된 영은 지금도 황금 천국에 가서 산다. 이를 깨닫고 기뻐 살아야 한다.
43. 세상에서 성공을 크게 한 재벌이나, 정치인이나, 왕이나, 가수 · 배우 · 화가 같은 예술인이나, 직장인이나, 학자나, 좋은 장소에 사는 자나, 미인이나, 사업하는 자나, 건축가나, 시인이나, 종교가나, 전도자나, 선지자나, 사사나, 메시아나 모두 그 위치만큼 고통도 받고, 억울함도 받고, 투자도 하고, 몸부림도 치고, 오해도 받고, 고생도 하고, 배고픔과 헐벗음도 겪고, 무시당하며 살았던 것이다.
44. 육신에 속해 성공한 자들은 그 당세와 그가 죽은 사후에 육신 세계에서 그 이름을 알아주고 명성을 휘날리게 후손들이 해 준다.
45. 신앙적으로 성공한 자들은 육계에서도 그 이름을 알아주고 명성을 날리게 해 주고, 그 영은 황금 천국에서 그 권세와 명예와 영광으로 영원히 빛나게 해 준다. 이는 전능자 하나님, 성령, 성자가 절대 해 주신다. 해 주셔서 이미 영이 황금 천국에서 사는데, 육이 고생된다고 모른다. 그들로 하여금 더 빛이 나게 하고 영광을 받으신다. 고로 절대 해 주신다.
- 그러므로 주 안에서 환난, 핍박, 어려운 고통을 당해도 전도도 열심히 하고, 생명 관리도 열심히 하고, 가르침도 잘하고, 설교도 잘해 주고, 악한 자와 대적자들과 생명을 사냥하며 쫓는 자를 막고, 의의 싸움을 하고, 사탄과 배신자들과 억울케 하는 자들과

선한 싸움을 하며, 충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과 시대 보낸 자를 증거하며, 그 몸이 되어 화평으로 행할지이다.

46.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은 이 시대에 받은 은혜가 크기에 큰 나무는 바람을 많이 타듯 하는 것이다.

47. 하나님이 지구 생기고 나서 종교 역사 중에 최고의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말씀을 성령과 성자와 예수님과 함께 시대 보낸 자를 통해 주셨다. 고로, 말씀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그 보낸 자의 사랑하는 신부가 되어 육도 살아가고, 영도 휴거되어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고 있다. 끝까지 가면, 천년까지 영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고 전능자를 모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간다.

48. 이 희망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온 세상이 이런 시대를 원하고 기다리나, 시대 복음을 전해 줘도 무지와 악으로 대하니 그들 당세에 전해 주기 어렵다. 겨우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 믿게 하는 정도다. 사랑의 복음을 받고 당세에 이루고 가는 자들은 얼마나 행복하냐.

49. 악인들이 시대 의인들을 억울케 대하여도 전능자 하나님이 처음에는 가만두시다가, 때 되면 자신을 그같이 해하고 억울케 한 것으로 아시고 그 행한 대로 일점일획도 남김없이 주와 심판을 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시니 이미 심판을 하여 사망에서 산다.

50. 원수 갚는 것은 전능자와 심판주가 하신다. 그래야 그 행위를 모두 아시므로 행한 대로 다 갚아 주기 때문이다.

51. 왜 하나님은 의인을 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을 괴롭히고 억울케 하는 악인과 거짓된 자들은 그냥 두시냐고 원망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위대로 완전하게 갚으신다. 매일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

52. 모르면 시험에 들고 낙심한다. 하나님이 보낸 자는 자신의 욕이나 같아서, 의인을 괴롭히고 억울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 멸하신다. 성경에 수백 군데에 나와 있듯이 구약 4000년간, 신약 2000년간 그리 행해 오셨다.

(말씀 마쳤습니다.)